

‘고부갈등’이라는 착각 - 2015년 이후의 며느리 자기서사 연구*

박다솜**

1. 한국 현대문학 연구와 며느리의 이차적 소외
2. 자궁가족 개념의 의의와 한계
3. 재명명하기: 시가 내 괴롭힘
 - 3-1.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 여성-청년의 며느리 되기: 김진영의 <슬기로운 B급 며느리 생활>
 - 3-2. 자본화된 가족과 답습되는 폭력: 박식빵의 <남아, 그 선을 넘지 마오>
4.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우리 사회에서 ‘고부갈등’으로 축약되는 다양한 문제들은 오늘날 여성 주체들이 당면한 구체적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문학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탐구되지 못했다. 2015년의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한국 문학장에는 다양한 여성 인물과 그들이 맺는 관계에 대한 탐구가 활황을 이루었는데, 그 외중에도 며느리나 시어머니라는 지위와 그 관계성은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2015년 이후 발표된 두 편의 며느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5S1A5B5A17012572)

**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강사
사려 깊은 심사평을 남겨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리 자기서사 <슬기로운 B급 며느리 생활>과 <님아, 그 선을 넘지 마오>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여성 청년에게 며느리 되기가 의미하는 바를 밝히고, '고부갈등'이라는 오칭(誤稱)을 대신할 표현으로 '시가 내 괴롭힘'을 제언한다. 이러한 재명명은 그간 우리가 두 여성 사이의 사적인 갈등이라고 오인했던 것이 실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구조적 위계에 의한 성차별적 폭력임을 자각하게 한다.

본 논문은 여성 주체가 며느리로서 겪는 수난사와 그 답습의 문제를 가정 내 젠더 폭력으로 재인식함으로써 가족 서사 연구의 범주를 확장하는데 기여한다.

(주제어: 고부 관계, 고부갈등, 시가폭력, 시가 내 괴롭힘, 자궁가족, 며느리, 시어머니, 시댁, 시가, 에세이, 자기서사.)

1. 한국 현대문학 연구와 며느리의 이차적 소외

2010년대 중반의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한국문학장에는 여성, 장애인, 쿼어 등 기존의 문학 담론 안에서 소외되었던 인물군이 대거 등장해 그간 문학 미학이 망각하고 있었던 존재들을 일깨워 주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도드라진 것은 여성성에 대한 탐구였는데, 여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서사가 거듭 발견되었고 여성 주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들이 재사유되었다. 이는 물론 가족제도 안에서 여성들이 맺는 관계에 대한 탐구로 나아가기도 했다. 모녀 서사나 조모-손녀 서사의 반복되는 출현은 오늘날 한국문학이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가족의 계보를 새로 쓰고 있음을 알게 한다.¹⁾

1) 이런 시도로 볼 수 있는 대표적 작품들로는 황정은의 『연년세세』(2020), 정세라의 『시선으로부터』(2020), 최은영의 『밝은 밤』(2021) 등이 있다.

이러한 서사적 경향에 대한 학계와 비평계의 반응 또한 더없이 열렬하고 재빨랐다.²⁾

그런데 최근 학계와 비평계가 보여주는 여성 인물들의 관계성에 대한 도저한 관심에 비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즉 ‘고부 관계’는 어째서인지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던 것 같다.³⁾ ‘딸 같은 며느리’라는 낯고 편의적인 수사에 의해 제2의 모녀 관계로 말해지기도 하는 고부 관계는 왜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의 한국문학장 안에서 비평적·학술적 탐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까? 여성이 생애과정 속에서 떠맡게 되는 하나의 역할로서 딸, 엄마, 손녀, 할머니 같은 지위와 그 관계성이 적극 탐색되었던 것과 달리 며느리나 시어머니의 위치와 그 관계성은 연구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못했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한데 이는 비단 2015년 이후의 일만은 아니어서 사실 한국 현대문학연

2) 오혜진, 「세대로 이어지는 환대와 우애의 여성 서사」, 『어문논집』 제92권, 중앙어문학회, 2022, 269-292쪽; 강유진, 「여인의 일생과 가족사 소설의 현대적 변용 연구 - 『파친코』, 『알로하, 나의 엄마들』, 『밝은 밤』을 중심으로 -」, 『어문논집』 제93권, 중앙어문학회, 2023, 269-302쪽; 황중연, 「모계 여성 서사와 그 불만—정세라의 『시선으로 부터』와 최은영의 『밝은 밤』에 관하여」, 『문학동네』 2023 여름호, 430-447쪽; 김나영, 「현대 소설의 가족 형상화 연구 - 2010년대 이후 모녀 서사를 중심으로」, 『픽션과 논픽션』 제1권 1호, 픽션과논픽션학회, 2024, 7-33쪽; 윤혜정,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가족소설에 나타난 균열의 양상과 의미 - 김혜진, 『딸에 대하여』와 황정은, 『연년 세세』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6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 36-59쪽; 소영현, 「다시 만난 세계: 여성 서사의 진화와 가족 서사의 재발견」, 『비평포럼』, 문학과지성사, 2025, 21-50쪽; 백지은, 「친밀한 공동체를 찾아서」, 『비평포럼』, 문학과지성사, 2025, 51-71쪽 등.

3) 웹툰 <며느라기>(2017)를 대상으로 한 약간의 논의를 발견할 수 있다. (공다해, 「웹툰에 나타난 젠더 재현과 여성민속적 함의 - <며느라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69권,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5-39쪽; 구자준, 「변화하는 일상툰의 비판적 가족 재현 - 웹툰 <단지>와 <며느라기>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65호, 한국극예술학회, 2019, 71-98쪽; 김서화, 「우리가 가족을 배반할 때」, 『황해문화』, 2018 봄호, 73-92쪽 등.) 그러나 모녀 관계나 조모-손녀 관계에 대한 관심에 비하면 그 수가 극히 적다 하겠다.

구사 전체에 걸쳐서 고부 관계에 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고부 관계는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의 분과학문장에서 지극히 ‘현실’의 문제로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고⁴⁾, 문학/서사적 접근은 고전문학·구비문학⁵⁾의 영역에 국한해서 이뤄져 왔다. 따라서 현대문학 작품에서 재현되는 고부 관계는 소홀히 다뤄져 왔다고 봐야 하며 그나마 있는 연구들도 작품론의 차원에서 접근될 뿐 ‘고부 관계’의 특수성에 주안점을 두지는 않고 있다. 현대적 고부 서사는 이러한 학계의 무반응 속에서 KBS 드라마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MBN 예능 〈속풀이쇼 동치미〉, EBS 교양 프로그램 〈다

-
- 4) 이런 경우 고부 관계는 ‘고부갈등’의 관점에서, 즉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갈등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되었다. 때문에 ‘갈등의 원인’, ‘갈등 해소’ 등의 표현이 자주 발견된다. 1970년대부터 2004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표된 고부 관계 관련 논문들은 김밀양, 「고부관계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9권 2호, 한국가족관계학회, 2004, 173-187쪽에서 잘 정리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초반 이후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이 꾸린 다문화가정의 고부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 또한 증가하였는데 이 경우 주로 시어머니가 겪는 어려움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은영·권지은·황순택,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고부갈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7권 3호, 한국여성심리학회, 2012, 363-383쪽; 성은영·황순택,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고부갈등, 스트레스 대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8권 1호, 한국여성심리학회, 2013, 243-256쪽 등) EBS 교양 프로그램 〈다문화 고부열전〉에 대한 분석이 고부 관계 연구의 한 갈래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짚어둔다. 하지만 해당 논의들은 ‘고부 관계’ 보다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 문제를 초점화하고 있다. 〈다문화 고부열전〉의 단발성 여행을 통한 갈등 해소 플롯이 다문화가정의 여러 문제를 ‘사소한’ 개인들의 문제로 왜곡한다는 논의(강현민, 「다문화가정의 사소한 갈등: 〈다문화 고부 열전〉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8호, 한국콘텐츠학회, 2015, 179-185쪽)나 프로그램의 회차별 제목이 결혼이주여성을 타자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서경희·정철원, 「누가 갈등의 유발자인가?: 「다문화 고부열전」의 제목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1권 5호, 인문사회21, 2020, 1249-1264쪽) 등이 이에 해당한다.
- 5) 구비문학의 경우 시집살이 노래와 시집살이담을 소재로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신동훈 외 11명의 연구자들이 현지조사를 통해 시집살이 체험담을 채록한 총 10권 분량의 『시집살이 이야기 집성』(박이정, 2013)과 신동훈 외 8명의 논문이 수록된 논문집 『시집살이 이야기 연구』(박이정, 2012)가 대표적이다.

문화 고부열전》 등에서 재현되는 대중의 서사로만, 그리고 자극적인 막장 스토리로만 간주되어 온 듯하다. 한국구술사연구소 소장 윤택림에 의하면 “한국 여성 구술 생애사 내지 생애이야기 연구에서”도 “시집살이 이야기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주제다. (...) 인류학자들의 구술사 연구는 주로 한국전쟁과 관련된 것이었고, 여성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여성 구술 생애사를 소외된 여성과 피해자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즉 이들 연구자들은 평범한 여성들의 일상사에 해당하는 시집살이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⁶⁾ 말하자면 페미니즘 대중화 이전의 문학장에서는 “평범한 여성들의 일상사”가 학문적 관심의 대상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다면 “평범한 여성들의 일상사에 해당하는” 서사가 만발하는 2015년 이후의 한국문학장에서 고부 관계에 대한 무관심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학문적 관성에 더해, 고부 관계의 고유한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해 보게 된다. 고부 관계는 이른바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 구도를 체현하는 것으로서, 여성 해방의 단초로 사유되는 ‘여성 연대’를 가로막는 명징한 이미지로 상상된다.⁷⁾ 말하자면 고부 관계에 대한 탐구는 “여성해방운동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질 뿐”⁸⁾인 사안이었던지도 모른다. 직간접적 여성 억압과 백래시의 위협에

6) 윤택림, 「여성은 어떻게 이야기 하는가: 시집살이 이야기를 통해서 본 여성 서사 분석」, 『구비문학연구』 제32호, 한국구비문학학회, 2011, 146쪽.

7) 이러한 상징적 이미지를 전복하기 위해서일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여성들의 연대’로 독해하는 시선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공라현, 「가족이라는 윤리의 폭력성과 전복의 정당성」, 『비평문학』 제87호, 한국비평문학학회, 2023, 7-43쪽.)

8)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 성차별주의의 영속화에 여성 또한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여성해방운동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질 뿐이었다. 페미니즘을 백인 남성 권력 구조에서 성공하기 위한 도구로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남자는 가해자이고 여자는 무조건 피해자라는 식으로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이 중요했다.”(벨 훅스, 『난 여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당면해 있는 상황 속에서 ‘여자와 여자가 갈등하는 문제’는 어쩌면 가장 반갑지 않은 논쟁거리일 것이다.

이런 사정에 의해 며느리들의 잔혹사는 학문장 안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듯싶다. 따라서 며느리들은 이중으로 소외되었다고도 말해볼 수 있을 텐데, 남성중심적인 한국문학장 안에서 ‘여성의 이야기’로(즉,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되는 것이 2015년 이전의 일차적 소외였다면, 여성 서사에 대한 적극적 탐구가 돋보였던 2015년 이후의 한국문학 학술장 안에서 도 본격적 연구의 대상으로 부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차적 소외에 해당한다. 현대 여성 주체가 며느리로서 겪는 문제는 오랜 기간 학술적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 학계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고부 관계는 가족 연구의 가장 문제적 지점 중 하나다. ‘covid’와 ‘divorce’가 합쳐진 단어 ‘코비디보스(Covidivorce)’는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증가한 현상을 지칭한다. 이동 제한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부부 간 갈등이 증가했고 이것이 곧 이혼율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영국과 미국 등 서구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며 중국에서도 팬데믹 기간 이혼 신청이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의 이혼율은 이런 추세에 역행하며 외려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코로나로 인해 가족을 제외한 친인척들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⁹⁾이 가능해지는 것은 ‘명절 스트레스’로 상징되는 한국적 가족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사용자의 참여로 구성되는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서는 ‘명절 이혼’

까?—성×인종×계급의 미국사』, 노지양 역, 동녘, 2023, 247쪽.)

9) 김유민, <코로나 이후 “친인척과 멀어져”...명절 이혼 줄었다>, 『서울신문』, 2022.01.1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10500130>. (접속일: 2026.01.09.)

을 “명절을 보내는 동안 갈등이 빚어지거나 심해져 하게 되는 이혼”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친인척과의 교류가 부부 간 갈등의 주요한 요인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얼마간 자연스럽게 2015년의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여성 서사의 범람 속에는 고부 관계를 다루는 서사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강화길의 <음복>(2019), 박서련의 <곤륜을 지나>(2019), 김유담의 <안(安)>(2021) 등의 소설 작품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 체계 속에서 대중서사로 분류되는 영화, 웹툰, 에세이 영역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고부 관계에 천착하는 시선들도 여럿 포착되었다. 2017년 수신지의 웹툰 <며느라기>가 인스타그램으로 연재되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고¹⁰⁾, 2018년 선호빈의 다큐멘터리 영화 <B급 며느리> 역시 감독의 책 <B급 며느리—난 정말 이상한 여자와 결혼한 걸까?>(2018)과 영화의 주인공이자 며느리인 김진영의 책 <슬기로운 B급 며느리 생활>(2019)까지 출간될 정도로 크고 긴 파장을 낳았다. 또 영주의 에세이 <며느리 사표>(2018), 박식빵의 에세이 <남아, 그 선을 넘지 마오>(2020)도 발간되었다.

상술했듯 이 중 웹툰 <며느라기>는 며느리의 위치성에 대한 학계의 탐구를 일부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며느라기>에 대한 작품 분석 바깥으로 적극 확장되지 못하면서, 담론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종다양의 고부 관계 서사에 대한 메타적 조명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현대문학사 속에서 잊혀지고 지워진 시어

10) 웹툰 <며느라기>는 2018년 책으로 발간(수신지, 『며느라기』, 굴프레스, 2018)되었으며, 인스타그램 연재 종료 이후 창작된 만화와 수신지 작가가 본인의 남편, 어머니, 시어머니를 인터뷰한 내용이 담긴 책 『노땅큐: 며느라기 코멘터리』(굴프레스, 2018)가 같은 해에 출간되었다. 또 2020년에는 카카오TV 오리지널에서 동명의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드라마 <며느라기>의 시즌 1 첫 화는 2020년 11월 21일 공개되었고, 시즌 2의 첫 화는 2022년 1월 8일 공개되었다.)

머니·며느리와 그들의 관계성은 면밀히 연구되어야 할 과제다. 본 논문은 일종의 시론으로서, 2015년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출간된 두 편의 자기서사를 대상으로 삼아 현대 사회의 고부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에서 자기서사는 2류의 글쓰기로 취급되어 왔”으며 “시나 소설처럼 허구적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심미성을 드러내는 것을 문학적 가치가 큰 것으로 여기는 장르 서열주의는 회고록을 진정한 문학의 반열에 올려 놓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지적과 함께 “젊고 아픈/미친 여자들”¹¹⁾의 자기 서사를 분석하거나, “우리 시대의 새로운 미적 양식으로 부상 중인 자기서사”가 “근대문학에서처럼 남성 엘리트가 아니라 여성과 장애, 젠더·퀴어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의해 창작되고 있음에 주목하며 “우울에 관한 여성 정병리 서사”¹²⁾를 살피는 최근의 자기서사 연구들은, 한국 사회에 내재한 장르 서열주의를 가시화하는 것인 동시에 글쓰기의 가치 체계를 재편하는 수행이라 할 수 있다. 문학과 현실의 단차가 한층 낮아진 현재적 상황을 적실히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다.

본 논문에서는 김진영의 <슬기로운 B급 며느리 생활>과 박식빵의 <님아, 그 선을 넘지 마요>를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현대 사회의 고부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두 글은 80년대생 여성 청년이 결혼 이후 ‘며느리’라는 역할을 떠맡으며 발생하는 문제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들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시행된 민주주의·자유주의·성평등 교육을 받으며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따라서 이전 세대와는 구

11) 김은하, 「젊고 아픈/미친 여자들과 자기 이론으로서의 글쓰기—여성 거식증에 관한 일인칭 서사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6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 129쪽.

12) 김은하, 「여성 정병리의 소수적 감정 쓰기」, 『현대문학의 연구』 제78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2, 520-523쪽.

별되는 가치관을 확립하였다. 두 편의 며느리 자기서사를 통해, 제도적 민주화 이후의 세대에게 결혼을 통한 가족 제도로의 편입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¹³⁾

조선후기 및 식민지시기 한국여성의 자기서사를 검토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한 박혜숙·최경희·박희병에 의하면 “자기서사란 화자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진술하며, 자신의 삶을 전체로서 성찰하고 그 의미를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 글쓰기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서사’는 단일한 장르개념이 아니며 다양한 장르를 포괄한다.”¹⁴⁾ 본고에서 분석할 두 편의 글은 결혼으로 ‘며느리’가 된 여성들이 그 지위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증언록의 성격을 가진 자기서사다. 이는 현대적 ‘며느리 자기서사’의 한 특징이라 볼 수 있으며, 후술하게 될 시집살이담이 영웅서사의 형태를 띠는 것과 구별된다. 이러한 구별 가능성이 ‘며느리’ 또는 ‘시어머니’라는 저자/화자의 지위와 깊이 연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최근의 “자기서사는 그간 사회에서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들이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고 대항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미디어로 기능하고

13) 영주의 에세이 『며느리 사표』의 경우, “25년은 어머니의 착한 딸로 살았고, 23년은 며느리, 엄마, 아내 역할로 살았다”(영주, 『며느리 사표』, 사이행성, 2018, 25쪽)라는 글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필자가 1969년생으로 추정되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박성원의 에세이 『불편한 나의 프랑스 시어머니』(페스트북, 2023) 역시 필자가 대학을 졸업한 지 5년 후 남편을 처음 만났고, 남편과의 결혼을 20년 전의 일로 회상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80년대생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우며, 에세이의 내용이 다문화가정의 언어와 문화 차이에 집중하는 면이 있어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유튜브에 ‘이혼 브이로그’를 연재했던 유튜버 ‘아넵’의 에세이 『가부장제의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위즈덤하우스, 2022)에도 시집살이에 관한 이야기가 일부 등장한다. 그러나 시가와의 문제가 전면화되기보다는 이혼 이후의 삶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역시 분석의 대상으로는 삼지 않았다.

14) 박혜숙·최경희·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 『여성문학연구』 제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328쪽.

있다.”¹⁵⁾ 본고는 가정 내 하위주체인 며느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그들이 겪는 부조리를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 연구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며느리·시어머니라는 정체성과 고부 관계를 한국현대문학/문화 학술장의 주요한 논제로 끌어들이고, ‘고부갈등’이 오칭(誤稱)임을 밝히는 것, 그리고 재명명을 시도하는 것까지가 본고의 목표에 해당한다.

2. 자궁가족 개념의 의의와 한계

세 여성 구술자의 시집살이 이야기를 분석하는 한 연구는, 그들의 자기 서사가 결국 어려움을 “극복한 여성 전사 이야기”¹⁶⁾가 된다는 점을 발견하고, “시집살이 노래에서 보여지는 가부장적 가족에 대한 저항과 독립, 부부애의 갈망은 왜 세 여성 구술자들의 생애이야기에서는 보이지 않을까?”¹⁷⁾라고 묻는다. ‘며느리’ 시기가 여성 주체의 생애과정에서 일시적인 시기라는 점은 고부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한시적인 며느리 시기를 거친 여성 주체들은 곧 시어머니가 되고, 시어머니가 된 그들에게 며느리 시절 겪었던 고난과 역경의 시집살이 이야기는 곧 자랑스러운 영웅담으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가족이 생존의 기본 단위인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을 지키는 것’이 언제나 절체절명의 문제로 사유되는 까닭에, 며느리 시절 온갖 고난을 견디고 가정을 지킨 이야기는 감동적인 영웅 서사의 형식을 차용하기 쉽다.

15) 김은하, 「젊고 아픈/미친 여자들과 자기 이론으로서의 글쓰기—여성 거식증에 관한 일인칭 서사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6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 108쪽.

16) 윤택림, 앞의 글, 173쪽.

17) 윤택림, 앞의 글, 176쪽.

인류학자 마저리 울프(Margery Wolf)가 대만 농촌 사회의 가족을 분석하며 제안한 ‘자궁가족(Uterine family)’ 개념은 시집살이 이야기에서 “가부장적 가족에 대한 저항과 독립”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를,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가족 안에서 ‘며느리’의 비천한 지위가 지속되는 연유를 설명해 준다. “울프는 신분과 재산이父에서 子로 전해지는 부계가족 관점에서 핵심되는 가족원은 부자이지만, 여자에게 초점을 맞추었을 때는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모자 관계가 핵심을 이루고 이러한 애정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중국의 가족을 자궁가족(Uterine family)이라 칭하였다.”¹⁸⁾ 임돈희는 울프를 따라 부계가족 속에 사는 여성의 생애를 4단계로 정리한다.

단계	기간	여성의 상황 ¹⁹⁾
1	출생-혼인 전	환영 받지 못하는 딸로 태어나 남자 형제와의 차별 대우 경험. 눈치 보기, 어른들의 기분 파악하기 등의 생존 기술이 발달.
2	결혼한 신부	결혼을 기점으로 낮은 집에서 살게 되므로, 친정에서보다 더욱 척박한 환경에 놓임. 아이들을 낳아 가장 확실한 자기 편을 만들고자 노력함. 이때 평생을 같이 살게 될 큰아들에게 더 큰 정성을 쏟음.
3	시아머니	생의 전성시대. 연로해 은퇴한 시부모, 애정으로 단단히 결속된 성장한 자녀들에 둘러싸여 살림권을 장악.
4	노후	노후에는 가정 내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강한 힘을 가짐. 애정을 기반으로 한 자녀들과 어머니의 편을 드는 아들(장남)로 인해 남편보다도 집안에서 더 큰 권력 발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 “여성에게는 일정 기간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만 하

18) 임돈희, 「여성과 가족관계」, 여성학교재편찬위원회 엮음, 『여성학의 이론과 실제』, 동국대학교출판부, 1991, 367쪽.

19) 임돈희, 위의 글, 367-370쪽의 내용을 정리하여 만든 표임.

면 자신의 권력의 기반인 '자궁 가족'을 이룰 수 있으며 그를 통하여 응분의 보상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의 차원이 열려 있었다.” “노후의 보상은 여성으로 하여금 억압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으며 즉, 세대간의 차별이 성적 차별을 상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²⁰⁾ 시집살이 이야기가 자주 “극복한 여성 전사 이야기”가 되는 것은 이런 까닭이겠다.

울프의 자궁가족 개념은 남성 중심적 가족사가 방치해 둔 가족 내 여성들의 존재를 다시 읽어낸다는 점에서 뜻깊다. 이 개념을 소개하며 한국적 분석을 시도한 임돈희는 울프의 시선을 차용할 때, 고부간의 갈등 원인을 “아들/남편”으로 재설정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부계직계가족 원리 관점에서의 고부문제는 대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살림권에 대한 다툼, 의견의 불일치, 성격차이, 또는 남편/아들에 대한 애정싸움 등 두 사람 간의 갈등으로 해석해 왔다. 따라서 며느리 탓 또는 시어머니 탓으로 고부 갈등의 원인을 규명해 왔다. 이러한 분석이 틀린 것은 아니나 자궁가족관점에서 보면 아들/남편의 애정이 누구에게 더 있는가에 따라 고부의 갈등의 성격과 권력이 결정된다 하겠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정확히 남편/아들의 애정이 어디에 어느 만큼 가 있는가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 아들의 애정이 어머니에게 더 있다는 확신이 선 시어머니는 그만큼 시집살이를 시킬 수 있는 자신이 선다. 또 며느리도 이 경우에는 시집살이를 할 각오를 한다. 반대로 아들의 애정이 며느리에게 더 많이 가 있음을 감지한다면 감히 시집살이를 시킬 수도 없고, 또 며느리가 듣지도 않는다. 따라서 직계가족원리에서 보면 고부간의 갈등원인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있지만 자궁가족원리에서 해석해 보면 아들/남편에 있다 하겠다.²¹⁾

20) 조혜정, 「한국의 가부장제에 관한 해석적 분석: 생활 세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99, 88쪽.

21) 임돈희, 앞의 글, 371-372쪽. (밑줄은 인용자)

위 분석은 시집살이를 가하고 또 수용하는 관계의 역학에 아들의 애정 상태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음을 시사한다. 가부장적 가족 안에서 아들, 특히 장남은 가정 운영의 전권을 쥐고 있으므로, 아들의 애정은 시어머니/며느리의 안위와 직결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면서 자신의 안위와 권력의 현재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가혹한 시집살이가 며느리나 아들에 의해 수용될수록 시어머니는 자신의 권력을 암묵적으로 공인 받고 안심할 수 있다. 시어머니 역시 혹독한 시집살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흔한 방식 중 하나는, 며느리 위에 군림함으로써 과거의 수난을 보상받는다라는 것일 텐데, 임돈희의 분석은 시집살이의 답습이 과거에 대한 엇나간 양갈음일 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의 안위를 확인하는 실질적 기능을 가진 것이기도 함을 입증한다.

이처럼 자궁가족 개념은 가부장적 가족 구조 안에서 여성이 겪는 고난의 역사가 왜 단절되거나 극복되지 못하고 여성의 생애 특정 시기에 걸쳐 반복되고 답습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단적으로 말해 이는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가 갖는 구조적 문제인 것이다. 가족 내의 남성 구성원에게 사회적·경제적 생존을 의탁해야 할 때, 여성 주체는 남아 선호를 통해 자신의 살길을 모색하게 되고, 시집살이를 답습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위를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자궁가족 개념에 기반한 이런 해석은 시집살이의 주체를 다소 부당하게 '시어머니'로만 한정할 위험이 있다. "2008년 7월에서 2010년 6월까지 2년간 (...) 경기, 충청, 강원지역을 대상으로"²²⁾하여 채록한 56편의 시집살이담을 갈등 유형에 따라 분류한 연구에 의하면 "시집살이담에서 시집살이를 시키는 주체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시누

22) 박경열, 「시집살이담의 갈등양상과 갈등의 수용방식을 통해 본 시집살이의 의미」, 신동훈 외 8인, 『시집살이 이야기 연구』, 박이정, 2012, 119-1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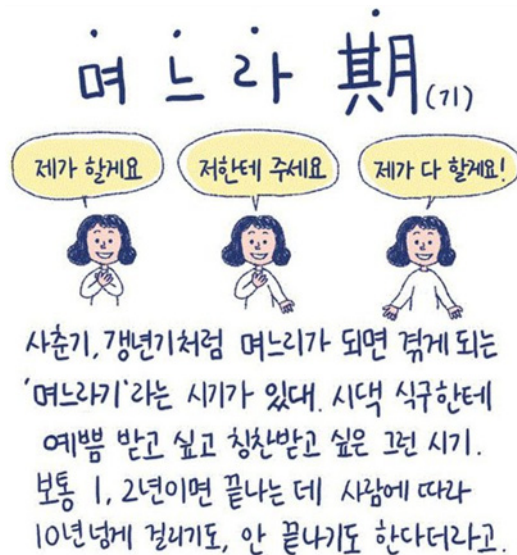
이, 동서 등”²³⁾으로 다양하다. 그렇다면 시집살이 및 오늘날 ‘고부갈등’으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현상에 대해, 이것이 여성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중심적 가족 구조에 의한 조직적 하대와 멸시라는 점이 보다 면밀히 논의되어야 한다. 자궁가족 개념은 여성 주체를 중심으로 가족관계와 가족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게 해주기도 했지만, 어떤 일들은 여성들만의 일로 축소하게 한 듯도 하다. 그러나 주지하듯 가족이란 남성과 여성이, 그들 각자의 이해와 욕망이 불평등하게 뒤엉켜 있는 조직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가부장제의 유형을 분석하면서 조선 초기에서 중기까지를 ‘자궁가족’으로, 조선조말에서 1950년대까지를 ‘모중심가족’으로, 1960년대 이후를 ‘엄마주의’로 분류하는 조한혜정의 진단²⁴⁾에 따르자면 오늘날 한국에서 목도되는 ‘고부갈등’은 자궁가족 개념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핵가족이 보편화되어 자녀가 결혼 이후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드물며, 2024년 기준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부부 비율은 48%²⁵⁾로 가정 내 여성의 경제적 생존을 오직 남성에게만 의존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23) 박경열, 위의 글, 120쪽.

24) 조혜정, 앞의 글, 122-123쪽. 모중심가족(matrifocal)은 “어머니가 제도적·구조적·정서적으로 중심이 되는” 가족이며, 엄마주의(momism)는 어머니가 “정서적 역할에 치중하는” 가족 구조를 뜻한다.(조혜정, 같은 글, 115쪽)

25) 통계청, 지표누리, 저출생 통계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idxCd=H0060>. (접속일: 2026.01.09.),



이처럼 변화한 상황 속에서도 남성 중심적인 가족 구조는 일종의 ‘문화’로 자연화되어 존속하고 있다. 2017년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재되었던 수신지의 웹툰 〈며느라기〉²⁶⁾는 가족 안에서 자행되는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를 현대 한국을 배경으로 재현한다. 주인공 ‘민사린’이 대학 동기였던 ‘무구영’과 결혼한 후 겪는 문제들을 다룬 이 만화는 “가부장적 정상 가족에서 일어나는 가장 평범한 순간의 일상적 폭력에 관해 이야기한다”²⁷⁾는 평을 받은 바 있다. 〈며느라기〉는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차리는 일이 ‘자연스럽게’ 며느리의 몫이 되고, 가족 식사 후 홀로 설거지를 한 며느리가 시가의

26) 본고에서는 책으로 발간된 『며느라기』(굴프레스, 2018)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후 이 책에서 인용할 경우 괄호 안에 책 제목과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27) 박남기, 「최근 한국만화의 가족 재현 연구 -정상 가족의 위기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 재현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23, 262쪽.

가족들이 남긴 과일을 ‘먹어 치우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앞치마를 선물로 주는 지극히 일상적인 순간들에 배어 있는 성차별적 사고방식을 문제 삼는다.

그런데 〈며느라기〉는 며느리 개인의 문제로 사태를 이해함으로써 ‘고부 갈등’을 탈맥락화·탈사회화할 위험도 노정한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며느라기’는 “시댁 식구한테 예쁨 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시기”를 의미한다. 시부모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며느리 개인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며느라기’라는 새로운 용어는 여성 주체 내면에 오랫동안 학습되어 온 착한아이 콤플렉스를 적실히 상기하게 하는 동시에, 남성 중심 가족 구조의 다종다기한 문제를 며느리 개인의 ‘예쁨 받고 싶은 마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일축할 위험도 품고 있다.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구조적 폭력을 그리며 의의를 갖게 된 〈며느라기〉가 구조의 폭력을 개인의 주체성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다소 단순한 결말로 수렴되는 듯 보인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시집살이담 연구에서는, 시집살이 이야기를 하는 화자들이 시가에서 겪은 갈등의 책임을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현상이 발견된다고 보고한다. “무엇 하나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결혼을 함으로써 갈등이 유발되었고 그래서 삶이 힘들었다고” 한다는 것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시부모는 화자와 대등한 존재가 아닌 섬겨야 하는 대상이기에 갈등의 책임을 화자 스스로에게 부여한”²⁸⁾ 것이라고 분석한다. 정반대의 방향에서 웹툰 〈며느라기〉도 사태의 책임을 며느리에게서 찾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웹툰은 이 질문을 ‘며느라기’라는 며느리의 욕망으로 풀어냈지만 사실 며느리가 자신의 의견을 쉽게 밝힐 수 없는 건 자신의 용기가 부족하거나 예

28) 박경열, 앞의 글, 145쪽.

쁨 받고 싶어서라기보다, 며느리를 동등한 구성원으로 간주하지 않는 가족 분위기 때문이”²⁹⁾라고 보아야 한다. 말하자면 ‘며느라기’는 개인의 감정적 문제일 수 없다. 그것은 ‘딸 같은 며느리’ 식의 수사에 의해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며, 친정부모³⁰⁾·남편³¹⁾·시부모의 목소리로 강요되는 것이지, 며느리의 마음 안에서 자생한 것일 수 없다.

따라서 며느라기를 거절할 수 있는 개인의 역능을 자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며느리를 가정의 ‘하인’³²⁾으로 인식하는 가부장제의 가족 구조가 내포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한층 더 주효하다 하겠다. 다음 장에서는 며느리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대하는 시가 가족 구성원들의 태도를 짚어보면서, ‘고부갈등’이 아니라 ‘시가 내 괴롭힘’이라는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아야 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29) 조경숙, 「며느리, 비로소 말하다」, 『여/성이론』 제38호, 도서출판여이연, 2018, 231쪽.

30) 〈며느라기〉에서 민사린의 엄마는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차리기 위해 시가에 간 딸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 “사부인 생신상은 잘 차려 드렸니? 내가 잘못하면 다 엄마 야빠 흥 되는 거 알지? 우리 사린이야 말 안해도 잘하겠지만, 예의 바르게 공손히 잘 하고 출근 잘 해라♥”(『며느라기』,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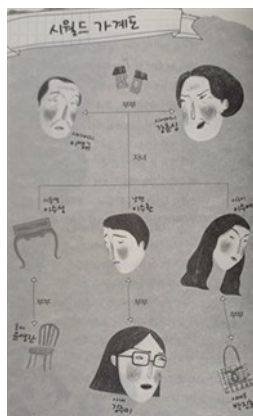
31) 민사린의 남편 무구영은 자신의 할아버지 제사에서 민사린이 가사노동을 일임하게 한다. 이 일로 두 사람은 다투게 되는데, 무구영은 민사린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 “사린이 너랑 결혼하고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그날도 작은아버지 앞에서 부모님이 당당해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걸 내가 망치고 싶지 않았어. 정말 미안해. 그런데... 그런데 그냥, 부모님 만나는 날만, 그냥... 그렇게... 있어주면 안 될까? 그 날만.”(『며느라기』, 245-246)

32) 선호빈 감독의 다큐 〈B급 며느리〉에서 감독의 큰고모는 며느리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손님이 아니야 며느리는. 최하야. 딸단이야. (...) 며느리는 시집가면 하인이야.”(선호빈, 〈B급 며느리〉) 며느리는 손님이 아닐뿐더러 최하이자 딸단의 ‘하인’이라는 규정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며느리는 모든 가족의 지위에서 최하위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순간의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감시의 대상이었”(강현숙 외 11명,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의 삶」,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제29권 6호, 한국간호과학회, 1999, 1234쪽)음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3. 재명명하기: 시가 내 괴롭힘

여성 주체가 결혼 이후 시가와 관계에서 겪는 문제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시집살이’에서 ‘고부갈등’으로 달라진 데는, 며느리들이 더 이상 시가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핵가족화와 일차적 연관이 있다. 말 그대로 이제는 ‘시집’에서 ‘살이’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시집살이’가 ‘고부갈등’으로 지칭되면서 다투는 여성들, 즉 ‘여적여’의 구도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한층 고착되었다.³³⁾ 그러나 가부장제가 남성 중심적인 규율로 작동하는 제도라면 그 안의 비-남성들이 저마다의 곤경 속에서 갈등하게 되

33) 『고부전쟁』이라는 제목의 한 소설은 이런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한 캐릭터 구축의 전형을 보여준다. 작품 맨 앞의 ‘시월드 가계도’는 소설이 ‘고부전쟁’ 사태를 바라보는 입장을 이미 뚜렷하게 드러낸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내, 남편, 시누이의 얼굴을 그린 이 일러스트에서 특징적인 것은 남성인물(시아버지와 남편)의 얼굴은 눈썹이 아래로 처지고 어딘지 풀죽은 모습인 데 반해, 여성인물(시어머니, 아내, 시누이)은 인상을 쓰고 있거나 눈썹이 위로 치켜올라갔거나 흘겨보는 표정을 하고 있는 등 ‘표독스러운 여성’의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재현은 ‘고부전쟁’의 원인이 악독한 여성 주체들에게 있으며 남성들은 이 전쟁의 순진한 피해자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소설 본문의 초반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부부가 시가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부부에게 건네는 인사말의 격차는 상당하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부부에게 시아버지는 “여행은 즐거웠냐?”, “좋은 꿈도 꾸고?”(23쪽)라고 인사하는 반면 시어머니는 “아들은 만들어 왔냐?”, “잘 알겠지만 이제 너의 본가는 여기다. 진정은 잊어라!”(24쪽), “이제 내 식구가 됐으니 좀 다듬어야겠다. 그런 줄 알아!”(25쪽)라고 말한다. 시누이의 첫인사는 “올케! 나, 한 성깔 하는 여자니 알아줘요”(26쪽)이다. 시가의 여성 인물들이 첫 등장에서부터 이미 ‘쌈닭’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김용상, 『고부전쟁』, 도서출판멜론, 2013)

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필연적이다. 이것이 ‘여적여’라는 말에 담긴 한 토막의 진실일 테다.

‘고부갈등’은 여러모로 부적절한 단어다. 그것은 ‘여적여’ 프레임을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한 여성이 결혼 후 겪는 문제들을 개인의 자기관리술 문제로 오도할 위험이 상존하는 표현이다. 여성 주체가 시가에서 마주하는 곤경은 ①‘고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②대등한 사이의 ‘갈등’도 아니다. 시집 살이를 시키는 주체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포함한 시가의 가족 구성원들로 넓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는 남편도 포함될 수 있다. 또 효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와 시가의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란 위계에 의한 비대칭적 양상을 띤다. 며느리는 “시부모와 갈등을 형성하지만 그러한 갈등은 일방적인 것이지 우열을 가릴 수 있는 팽팽한 갈등이 아닌 것이다.”³⁴⁾ “‘가족’은 성과 연령(세대)을 편성 원리로 한 제도이며, 그 안에서는 성과 연령에 따라 역할과 권위가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³⁵⁾기 때문에, ‘자녀 세대’의 ‘여성’인 며느리는 가족 내에서 가장 낮은 지위를 부여받게 되고, 이런 위계 원리에 의한 괴롭힘이 ‘고부갈등’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때 ‘고부갈등’은 근대의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야기한 문제를 두 여자의 사적 갈등으로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표현이다. ‘며느리는 하대할 수 있다’라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이야말로 ‘고부갈등’의 발본적 원인이므로, 논의의 대상을 ‘고부 관계’에 국한시키는 시선을 ‘시가’로 넓혀 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시가폭력’ 또는 ‘시가 내 괴롭힘’이 보다 적절한 용어라는 것³⁶⁾이 본고의 주장이다.

34) 박경열, 앞의 글, 137쪽.

35) 우에노 지즈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이승희 역, 도서출판 녹두, 1994, 73쪽.

36) 거시적인 의미에서는 ‘시가폭력’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복잡 미묘하고 은근하게 행해지는 시가 내 폭력 행위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갖는 현실적 역능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가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

미란다 프리커는 <인식적 부정의>에서 “성적 괴롭힘에 대한 비판적 개념을 갖기 이전 시대에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여성들의 경우”³⁷⁾를 예로 들면서 ‘해석학적 부정의’ 개념을 제안한다. 해당 개념은 사회의 해석학적 자원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인식적 부정의를 지칭하는데, “인식이 부족했던 시기에 여성은 자신이 겪은 경험을 적절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 고통을 소통을 통해 타인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다”³⁸⁾는 것이 프리커의 주장이다. 오늘날 며느리들이 시가와외의 관계에서 겪는 문제를 설명할 적당한 용어가 부재하다는 사실은, ‘해석학적 부정의’의 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것이 ‘시가 내 괴롭힘’이라는 새로운 명명을 발의하는 이유임은 물론이다.³⁹⁾

정리해보면 ‘시가 내 괴롭힘’이란 결혼한 여성 및 그 여성의 원가족이, 그녀와 결혼한 남성 및 그 남성의 원가족보다 서열이나 지위가 낮다는 여성혐오적 사고방식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하대 및 모멸적 언행을 포괄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시가 내 괴롭힘은 시모 뿐만 아니라 남편, 시부, 남편의 형제자매, 남편의 친인척, 심지어는 여성의 친정 부모 등 그 누구에 의해서도 자행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시되는 부당행위에 더해 ‘며느리 도리’라는 이름으로 공유되는 가부장적 규율 모두를 문제 삼는 표현이 ‘시가

세운다. ‘고부갈등’의 재명명과 관련된 다채로운 논의가 사회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촉발되길 바란다.

37) 미란다 프리커, 『인식적 부정의』, 유기훈·정선도 역, 오월의봄, 2025, 26-27쪽.

38) 위의 책, 27쪽.

39) 『인식적 부정의』 7장에서 프리커는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이라는 단어가 탄생하는 순간—해석학적 공백이 메워지는 순간—이 담긴 브라운 밀러의 회고록을 인용하고 있다. “우리는 미묘하거나 미묘하지 않은 지속적 행동들을 모두 포괄하는 무언가를 원했어요. 누군가 ‘괴롭힘harassment’을 떠올렸어요. 성적 괴롭힘! 우리는 즉시 동의했어요. 바로 그거였죠.”(273-274쪽) 본고가 ‘괴롭힘’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데에는 해당 대목의 영향도 있었음을 밝혀둔다.

내 괴롭힘’인 것이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두 편의 에세이 〈슬기로운 B급 며느리 생활〉과 〈남아, 그 선을 넘지 마오〉를 대상으로 오늘날 우리가 ‘고부갈등’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쩌서 ‘시가 내 괴롭힘’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미리 언급해 두자면, 80년대생 저자들의 며느리 자기서사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시가 내 괴롭힘을 이해하는 두 양상을 보여준다. 그 첫 번째는 ‘개인화’다. 〈슬기로운 B급 며느리 생활〉의 저자 김진영은 며느리로서 자신이 겪는 문제를 개인 대 개인의 갈등으로 오인한다. 이는 ‘고부갈등’을 남성 중심적 가족 제도에서 기인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여적여’의 구도로 개인화하려는 가부장적 욕망과도 맞닿는 지점이 있다. 두 번째는 ‘자본화’다. 〈남아, 그 선을 넘지 마오〉의 저자 박식빵은 스스로가 처한 부조리한 상황을 자본의 격차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문제로 납득한다. 이는 돈을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자본주의적 명령이 가족 관계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3-1. 자유롭게 평등한 개인, 여성-청년의 며느리 되기: 김진영의 〈슬기로운 B급 며느리 생활〉

〈슬기로운 B급 며느리 생활〉의 저자 김진영은 1982년생의 여성으로 필자 자신의 소개에 의하면 “2012년 고시공부를 그만두고(그래서 백수였던) 방황하던 중 덜컥 임신을 하고 영화감독 지망생인(그래서 마찬가지로 백수인) 호빈과 결혼을 했다.”⁴⁰⁾ 네 명의 자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난 저자는

40) 김진영, 『슬기로운 B급 며느리 생활』, 김영사, 2019, 책날개 저자소개. (이후로 이 책에서 인용 시 괄호 안에 제목과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이때 제목은 편의상 ‘슬기로운’으로 축약한다.) 김진영이 결혼 이후 겪은 우여곡절은 남편 선호빈 감독의 영화 〈B

가정 안에서 남성 형제와의 비교나 차별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고 학교에서도 성차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녀가 처음으로 성차별을 경험한 것은 결혼 이후, 남편의 원가족과 만나면서다.

“중학교 때는 남녀 구별 없이 가정과 기술 교과목을 배웠다. 즉, 평등을 교육받은 세대다. 나는 여고를 거쳐 대학교는 한국에서 비교적 성평등 수준이 높은 곳을 다녔다. 졸업 후 혼자 골방에 앉아 고시공부를 하다가 아이를 갖고 호빈과 결혼을 했다. 결혼 전까지는 여자로서의 나의 삶이 특별히 불편하거나 불만인 적이 없었다. (...) 그런데 ‘진짜 여자들의 세상’을 만난 건 결혼을 하고 나서다. 결혼을 통해 직접 경험한 ‘기혼여성의 삶’은 과거의 어느 곳에서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다.”(《슬기로운》, 124-125)

중학교부터 6차 교육과정⁴¹⁾의 적용을 받은 1978년 이후의 출생자들은 명목상으로는나 성평등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이 세대의 여성 청년들은 남성 청년과 다를 바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 간주되었으며, (명문) 대학 진학과 (대기업) 취업을 마땅한 생애과정으로 요구받는 능력주의의 신봉자들로 길러졌다. 이는 본고가 80년대생 저자들의 며느리 자기서사를 살피는 궁극적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 여성-청년들이 고부 관계를 사유하는 방식은 이전 세대의 그것과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1995년 발간된 김민희(며느리)의 <고부일기>(형제출판사)와 1996년

급 며느리>(2018)와 책 『B급 며느리—난 정말 이상한 여자와 결혼한 걸까?』(믹스커피, 2018)에도 담겨 있다. 본고는 이들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참고하며 논지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4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중학교에서 “남여를 구분하는 ‘기술’과 ‘가정’ 교과를 폐지하고 ‘기술·가정’ 교과를 신설함으로써 남여를 구분하는 교육방식을 탈피하고자 하였다.”(<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212&pageFlag=&sitePage=1-2-1>. (접속일: 2026.01.09.))

출판된 천정순(시어머니)의 <붕어빵은 왜 사왔니?>(형제출판사)는 고부가 서로의 관계를 각자의 입장에서 고찰한 독특한 글이다.⁴²⁾ 두 책의 서문을 비교해 보는 일은 당대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시어머니가 쓴 <붕어빵은 왜 사왔니?>의 서문 「책을 내면서」는 “며느리를 처음 맞아들이면서 워낙 시원치 않게 생겨서, 저것을 언제 내 사람으로 만드나 몸을 달았던 기억이 엇그제 같은데”라고 말하며 시작한다. 반면 며느리가 쓴 <고부일기>의 서문 「일기를 내면서」는 “때로는 못된 성질이 솟아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했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저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힘들게 했습니다”라고 말한다. 공적 담론장에서 두 주체가 보여주는 발화의 태도와 표현의 수위를 통해 가정 내 하위주체로서 자유로운 발화가 제한된 며느리의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고부일기>의 저자는 선/악의 가치 판단을 내포한 ‘못된 성질’을 자신에게 속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그 정도가 문제될 뿐 옳음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엄격한 잣대’를 시어머니 쪽에 배치해 둔다. 짧은 인용만으로도 며느리에 대한 인격적 하대가 당연했던 당대 여성 인권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1947년생 며느리(김민희)가 공적 발화의 현장에서 자신을 낮추었던 것과 달리 <슬기로운>의 저자 김진영은 결혼 이후 마주한 기혼 여성의 삶이 “과거의 어느 곳에서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다”라고 말한다. 현대 사회의 일부 여성 청년들에게 결혼이란 가부장제라는 낡은 제도로 흡수되는 예상 밖의 과정으로 여겨진다. 결혼으로 부여받은 ‘며느리’라는 자리는, 형식적으로나마 성평등 교육을 받고 신자유주의의 기수로 키워져, 자기를

42) 이들의 책은 각각 “8만부, 6만부가 팔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당당히 올라”(《어머니-아들-며느리가 쓴 고부갈등 극복담》, 『조선일보』, 1997.05.2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7/05/29/1997052970166.html. (접속일: 2026.01.28.))가기도 했고, SBS 드라마 <달콤한 신부>(1999.10.17. ~ 2000.04.23.)로만 들어지기도 했다.

계발해 능력을 갖춘다면 성별과 무관하게 어디서든 한 명의 오롯한 개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현대 한국의 여성 청년들이 좌절하는 장소다.

원가족 안에서 성차별적 역할 분담을 체험해 본 적이 없고, 자유주의·개인주의적 평등 교육을 받으며 자란 저자가 자신의 문제를 ‘고부갈등’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대목은 흥미로우면서도 문제적이다.

처음 호빈이 내 부탁으로 촬영하기 시작한 영상을 모아 고부갈등에 관한 영화를 만들어보겠다고 했을 때, 나는 난색을 표했다. 영상이야 남편의 소유물이니 그것으로 영화를 만들든 뮤직비디오를 만들든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니었지만, 이게 무슨 고부갈등인가 싶었다. 내 생각에 어머니와 나의 충돌은 서로 간의 개성이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지 전형적인 고부갈등의 문제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너무 특이하다고 불리는 나 김진영과 내가 생각하기에 매우 특이하신 시어머니의 캐릭터가 부딪힌 문제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그러자 호빈은 “생각해봐. 네가 말한 대로 우리 부모님은 너한테 ‘일반적인 인간 대 인간의 매너’를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잖아? 네가 며느리라서 그런 거야. 너한테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게 바로 고부갈등의 보편적인 지점이야.” 듣고 보니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나도 고부갈등을 겪고 있는 거였다. (<슬기로운>, 164-165. 밑줄은 인용자.)

결혼 이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겪게 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고부갈등’이 아니라 특이한 개인들 간의 충돌이라고 오인하는 태도는 구조적 관점이 결여된 개인주의적 입장의 한계를 보여준다. 인용문에서 저자의 생각을 교정해주는 것은 남편이다. 그는 ‘시월드’를 “여자들의 내무실”이라고 칭하며 자신이 경험한 군대 “내무실과 ‘시월드’는 닮았다”⁴³⁾고 말하

는데 이런 비유는 꽤 정확하다. 배운민정은 자신의 가족 호칭 개선 투쟁기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에서 결혼한 부부가 상대의 가족 구성원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호칭의 불평등성을 지적한 바 있다. 파트너와 결혼하기 전에는 그 부모님들과도 수평적 대화가 가능했었는데, 결혼 제도로 묶인 이후에는 남편의 출생 순위에 따라 아내의 서열이 정해지고, 아내는 남편의 부속품으로 배치된 채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관계 맺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지칭하는 호칭은 가족 내부의 위계를 가시화하며, 그 과정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는 또렷해진다.⁴⁴⁾ 결혼을 기점으로 남성 성원의 위계에 따른 서열화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은, 선호빈의 말대로 병영 문화와 흡사하다. 이름 앞에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등의 계급을 붙여 부르는 군대의 계급 제도와 한국 가족의 운영 원리는 동계에 놓여 있는 셈이다.⁴⁵⁾⁴⁶⁾ 그러므로 그 안에서 개인은 결코 개인이기 어렵다.

한편 〈슬기로운〉에서는 김진영의 삶과 그녀가 꾸린 가족에 침범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이는 스스로를 자유롭고 평등한

43) 선호빈, 앞의 책, 186쪽.

44) “시가에서 ‘며느리’의 자리는 가장 말단이다. 또한 며느리들 사이에도 배우자인 남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위계가 만들어진다. 이 가부장적인 서열 구조는 ‘아주버님-제수씨’, ‘도련님-형수님’, ‘아카씨-올케’, ‘형님-동서’ 등 가족 간에 통용되는 호칭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배운민정,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푸른숲, 2019, 8쪽.)

45) 따라서 며느리가 시가의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겪는 부당 행위는 군대 내 부조리에 비견될 수도 있을 것이다.

46) 김진영이 출연하는 영화의 제목 ‘B급 며느리’는 가족 내 서열 문화를 경유해서만 온전한 이해에 도달한다. 이때 김진영이 며느리로서 A급인지, B급인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며느리가 채점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며느리는 시부모가 등급을 매길 수 있는 대상, 세밀한 평가의 대상이라는 것이 한국 가족의 암묵적 규율이며, 영화의 제목은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개인으로 간주하는 김진영과 “한국의 표준 며느리상으로 살아”(〈슬기로운〉, 8) 온 시어머니가 갈등하는 근본적 이유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사적 침범에는 가부장적 모성 정체성의 모순적 면모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공/사의 분리라는 근대적 저주는 여성들의 정체성 수립 장소를 사적 공간으로, 가정 내부로 국한해 왔다. 장성한 자녀의 독립 이후 느끼는 공허함을 뜻하는 ‘빈둥지증후군’은 여성의 전유물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여성 주체에게 가정 밖의 삶이 부재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휴머니스트, 2022)는 가정 안팎에서 다양한 노동에 종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명함이 없었던’ 고령 여성들을 인터뷰한 책인데, 공적 세계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은 명함을 새길만한 것(사회적 인정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못하고, 사적 세계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은 노동으로조차 사유되지 못했음을 일깨운다.

그런데 이때 가사 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 동시에, 모성애로서 숭배되었다.⁴⁷⁾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와 같은 문장들로 대변되는 모성 신화는 여전히 견고하다. 그래서 여성에게 모성은 억압인 동시에 자원이다.⁴⁸⁾ “훌륭한 어머니’는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최상위의 지위이자, 잡음 없이 존경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위처럼 보”⁴⁹⁾이는 것은 이런

47) 앞서 언급한 책 『붕어빵은 왜 사왔니?』에는 “며느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 취직하여 직장에 다니느라 살림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시집을 왔다”(15쪽)라는 문장이 있다. ‘살림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우위를 점했던 시절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문장이다.

48) “여성에게 섹스와 모성은 자원이자 억압이다. 남성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 가부장제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작동 기제이다.”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20, 163쪽.)

49) 박다솜, 『모성 숭배와 모성 혐오의 악순환 - 이수지의 ‘제이미맘’ 캐릭터와 박서련의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31권 2호, 대중

까닭에서다. 정체성 서사의 이러한 편중은 여성 주체가 가정에 집착하는 원인이 된다.⁵⁰⁾ 공적 세계에서의 인정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던 세대(가령 <슬기로운>의 시어머니 세대)의 여성들이 보이는 가정에 대한 태도는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회적으로 나름의 성공을 이룩한 여성이 모종의 죄의식 속에서 '워킹맘' 정체성을 경유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가족 성원들과의 관계에 대한 여성 주체의 집착에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슬기로운>은 성장 과정에서 성차별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형식적으로나마 성평등한 교육을 받은 80년대생 여성 청년이, 결혼제도에 편입함으로써 성차별을 직접 경험한 이야기다. 그녀는 시가에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맺고자 애쓰는데, 이러한 시도 자체가 시부모와 남편에게는 별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위계적 가족 구조의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고 끝까지 믿는다.⁵¹⁾ 그런데 개인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이런 태도는 '고부갈등'을 일종의 문화로 순응하지 않고 문제 삼는 기제가 되기도 하지만, 웹툰 <며느라기>가 그랬듯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잘못 정위하기도

서사학회, 2025, 348쪽.

50) 김진영의 글에서 이런 현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김치 전쟁'이다. 저자는 김치를 하나의 철저한 상징적 기표로 독해한다. "한국 사회에서 김치란 것은 살림의 정수다. (...) 어머니는 우리 집에 본인이 만든 김치를 항상 채워주고 싶어하셨다."(<슬기로운>, 85) 저자는 원치 않는 김치나 반찬 따위를 억지로 받아야 하고, 심지어 그에 대해 열렬한 감사 인사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부당함을 느낀다. 저자의 남편이 예리하게 간파하듯 "어머니에게는 음식 또한 권력"(선호빈, 앞의 책, 148쪽)이다.

51) "가족관계에 대한 강박에서 우리 모두 좀 '쿨'해질 필요가 있다. 가족이란 모름지기 천륜이라는 연결고리 아래 희생과 인내, 애뜻함과 눈물은 기본이며 싫다는 말 따위는 맘속에 쫓겨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슬기로운>, 63)라는 주장은 한국식 가족주의의 중요한 정서인 죄책감을 부조해내고 또 그것을 보다 산뜻하게 바꿔 나가기를 염원하고 있다.

한다.⁵²⁾

하나 가족의 해방을 꿈꾸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어서, 저자의 남편은 “당시에 내가 부모님에게 저자세였던 이유는 내가 우리 집 생활비를 100%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이”⁵³⁾라고 고백한다. 장기화된 저성장 경제에서 기인하는 자녀 세대의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 그로 인한 부모 세대의 종속 등의 문제까지가 현대 한국의 여성 청년이 며느리가 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곤란일 것이다. 이는 현실 담론에서 자본주의적 논리로 일축—경제적 지원을 한 만큼 부모에게는 권리가 생긴다—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시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나 육아 도움의 문제는 며느리의 곤경을 한층 복잡하게 만드는 면이 있다. 다음 절에서 살펴 볼 〈남아, 그 선을 넘지 마오〉의 며느리는 자본주의의 논리에 보다 뚜렷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조금 더 찢어진 듯 느껴진다.

3-2. 자본화된 가족과 답습되는 폭력: 박식빵의 〈남아, 그 선을 넘지 마오〉

〈남아, 그 선을 넘지 마오〉(이하 〈남아〉)의 저자 박식빵은 85년생 여성으로, 동갑내기인 남편과 결혼했다. 영국에서의 신혼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와 시가 가까이 살게 되면서 저자의 고난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52) 저자는 “‘가부장제도’라는 것은 시어머니가 본인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았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면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가부장제도가 남아 있겠지 만 적어도 내 삶은 좀 나아질 수 있으니 말이다”(〈슬기로운〉, 164)라고 쓰기도 한다.

53) 선호빈, 앞의 책, 58쪽. 그는 경제구조의 문제를 ‘고부갈등’의 요인으로 격상시키기까지 한다. “결국 소수의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모님께 어느 정도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존하다 보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나는 이러한 경제구조가 고부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한다.”(선호빈, 앞의 책, 99쪽.)

다. <님아>는 시가의 여러 가족 구성원들에 의한 하대 및 학대를 고발하는 며느리 자기서사라는 점에서 ‘고부갈등’을 ‘시가 내 괴롭힘’으로 정정할 필요를 직접 요청하고 있다. 혼인신고 이후 정식으로 가족이 된 걸 축하하는 자리에서 저자는 부부 사이의 호칭을 ‘○○씨’로 교체할 것을 요구 받는다. 그런데 이는 남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룰로, 저자는 “그것이 아들과 며느리 간의 위계를 정해준 말이었음을 나중에야 알게”⁵⁴⁾ 된다. 호칭 교체를 통한 위계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폭력이 자행된다.

저자의 “시가는 차례와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안”이었음에도 “며느리 들어왔으니 네가 솜씨 발휘 한번 해”(〈님아〉, 39)보라며 며느리 혼자 차례상을 준비해 오도록 한다. 간소하게 준비하면 된다는 남편의 조언에 따라 성묘 음식을 해간 저자는, 시어머니로부터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냐며 눈물을 쏟도록 혼이 난다. 다시 ‘제대로’ 음식을 준비해 간 이후에야 소동은 일단락된다. 그런데 그 이후 명절은 원래의 간소한 형태로 되돌아간다. 이 사건을 두고 훗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애, 그건 내가 너 길들이려고 그랬던 거지. 처음이 중요하니까!”(〈님아〉, 41) 이런 식의 길들이기와 하대가 저자의 원가족으로까지 번져간다는 점이 <님아>의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다.

평생 김장을 해본 적 없는 시어머니가 저자에게 김장을 제안하면서 “나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니 네가 해봐라.”, “친정엄마한테 물어보면서 하면 되겠네.”(〈님아〉, 66)라고 말하는데, 이 김장은 결국 저자가 친정에 “내려가는 길에 절인 배추를 차에 싣고 가서 친정엄마와 김장을 하라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님아〉, 67)하고 만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사업하느라 매우 바쁘지만 친정엄마는 전업주부란 점, 시어머니가 한 번도 김장을 해

54) 박식빵, 『님아, 그 선을 넘지 마오』, 북로그컴퍼니, 2020, 23쪽. 이후로 이 책에서 인용 시 괄호 안에 책 제목과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보지 않은 점, 결국 나와 남편이 먹을 것이니 맛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점 등”(〈남아〉, 67)이 이유가 되어, 저자의 친정 어머니는 사돈댁에서 먹을 김장을 한다. 이 김장 사건에 대한 저자의 해석은, 경제적 종속 또는 우위의 문제와 그로부터 기인하는 부당한 대우가 시부모와 저자 부부의 관계를 거뜬히 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친정엄마는 딸이 한국에서 새 출발하는 데 경제적 보탬을 못 주었다는 이유로, 시부모님이 바쁘시다는 이유로 사돈네 김장을 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서울로 따라와 이사 정리까지 도와주셨다. 돈으로 보태주는 대신 몸으로 때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짜증나고 슬픈 결론에 도달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고, 그때마다 나는 친정이 가난해서 물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또는 우리 엄마는 돈 안 버는 주부니까, 또는 내가 맞벌이 안 하고 육아만 하고 있으니까 등의 이유로 스스로 작아져야만 했고, 자존감은 나날이 떨어졌다.(〈남아〉, 68쪽. 강조는 인용자)

저자는 시가와 가까이 살면서 힘들었던 시절에 대해 “시가에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었기에 우리 부부에겐 발언권과 결정권이 거의 없었다”(〈남아〉, 66)라고 회상하는데, 위 인용문은 경제력과 발언권의 연동 문제가 양가 부모의 관계에도 적용됨을 보여준다. 시부모와 친정 부모의 경제력 차이가 암묵적으로 가늠되고, 이를 전제로 부당한 대우가 행해지고 수용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친밀성의 공동체라고 손쉽게 말해지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가시적 손익 계산의 역학을 절감하게 된다. 여기에 친정 어머니의 가사 노동에 대해 ‘돈을 보태줄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몸으로 때우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저자의 육아를 맞벌이와 비교해 폄훼하는 부분은 젠더화된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이 상황에 따라 소외되

거나 승양되는 모순적 현실을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저자의 친정 어머니로 하여금 시가의 김장을 대신 하게 만들거나, 아들 부부 앞에서 “원래 사위 생일은 장모가 챙겨주는 거야! 네 장모한테 말해라!”(〈님아〉, 150)라며 ‘네 장모’, ‘네 처가’라고 지칭하는 행위에는 사돈 관계에 대한 기울어진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며느리의 친정 부모에 대한 은근한 모욕은 결혼한 여성이 시가에서 겪는 일들을 ‘폭력’으로 명명할 수 있게 하는 단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주의적인 한국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부모에 대한 모욕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지 않음에도 시가의 가족 구성원들이 며느리의 부모를 직/간접적으로 비난할 때 이런 언행이 폭력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폭언이 시어머니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저자의 “시아버지는 당신이 원하는 때에 바로 통화가 되지 않거나, 집에 들렀을 때” 저자 부부가 없으면 “버럭 화를 내”(〈님아〉, 36-37)고, “시아버지의 전화를 놓치는 상황이 생겨 바로 다시 전화를 드리면 왜 그렇게 전화가 안 되냐며 역정부터 내 시곤”(〈님아〉, 112) 한다. 아이의 걸음이 늦는 걸 보고는 “우리 아들”은 돌잔치 때 뛰어다녔는데 앤 누굴 닮은 거냐? 혹시 너네 집안 애들은 늦게 걸었냐?”(〈님아〉, 136)라고 비꼬는 사람도 시아버지다. 〈님아〉 속 시아버지의 언어폭력은 ‘고부(姑婦)’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부갈등’이라는 단어로는 정확히 포착할 수 없는 잉여적 폭력의 정체를 예증한다. 또 물리적/직접적 폭력이 아니라 위력을 통한 강요나 은근한 비아냥에 가깝다는 점에서 ‘시가 내 괴롭힘’이라는 표현의 현실적 유용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적 정의는 ‘고부갈등’이라는 표현을 바로잡을 새로운 개념을 구상하는데 유용한 준거가 되어 준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할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의 항목이 적용되어야 한다. 며느리와 시가의 관계는 직장 내의 관계와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①가정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다는 점,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가정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상통한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제법 복잡해지는데 제사나 차례 같은 전통적 가족 행사와, 손자녀 육아의 문제는 오늘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첨예하게 입장을 달리하는 지점일 것이다. 〈님아〉의 사례만 두고 볼 때, 아들의 결혼 이후 갑작스럽게 제사를 부활시키거나 김장 노동에 며느리(와 그 친정 부모)를 당연하게 차출하는 것 등은 ‘며느리 도리’로 할당되는 업무⁵⁵⁾의 적정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고부갈등’을 ‘시가 내 괴롭힘’ 또는 ‘시가 폭력’으로 재명명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올바로 명명되지 못한 구조적 폭력이 답습되기 때문이다. 〈님아〉의 저자에게서 체화된 순응과 폭력이 발견된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이는 저자가 정확히 반성하듯 “여자들의 무의식에도 시가가 친정보다 더 높다는 의식이 깔려 있”(〈님아〉, 139)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언젠가 올케와 남동생이 친정엄마 때문에 크게 다툰 적이 있다. 정확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엄마가 올케에게 섭섭한 말을 해서일 것이다. 초보 시누이였던 나는 같은 며느리로서 올케를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분명 우리 엄마는 며느리에게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하며 어느새 엄마

55) 물론 본고는 ‘며느리 도리’의 존재 자체를 의문에 부치고 있다.

편을 들고 있었고, 화해를 돕겠다 명목으로 동생 부부의 싸움에 끼어들고 말았다. 나는 엄마의 속상함에만 꽃혀 울케를 나무랐고, 그때의 상처가 컸는지 울케와는 한참을 서먹하게 지냈다.(<님아>, 138)

저자는 사건의 정황을 잘 알지 못한 채로 남동생 부부의 갈등에 관여하고, 친정엄마 편을 들어 울케를 나무라기까지 한다. 여기에는 자신이 울케를 혼낼 수 있는 존재라는 가부장적 전제가 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혼나야만 하는 존재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누군가를 혼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마찬가지다”(〈님아>, 185)라고 역설하던 저자가 “시’자의 명령”에 쫓겨 “자기도 모르게 며느리는, 울케는 아랫사람이라 여기”(〈님아>, 139)는 모습을 노정하는 것이다. 며느리 자기서사의 진솔함은 가시화·공론화되지 않은 위계가 남용되기 쉽다는 것을 저자 자신의 삶으로써 보여준다. 며느리의 지위가 가진 성차별적 성격을 고발해야 하는 이유다.⁵⁶⁾

조금 다른 맥락에서, 〈님아〉에 등장하는 ‘같은 여자’라는 표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이를 더 낳으라는 압박을 주는 시어머니에게 저자가 “어떻게 어머니는 **같은 여자**로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님아>, 75. 강조는 인용자)라고 말할 때, “도대체 왜 ‘시’누이가 되고 ‘시’어머니가 되면, 우리는 **같은 여자**임을 망각하고 울케에게, 며느리에게 못할 말을 하며

56) 게다가 폭력은 답습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의 약자를 향해 흘러가기도 한다. 저자는 시부모로부터 걸려오는 영상통화에 짧은 안부 인사를 건네고 아이에게 전화를 넘긴다. “아이가 웃으며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 이 시간이 여서 빨리,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면서.”(〈님아>, 168) 아들(남편) 몫의 효도가 며느리(아내)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며느리가 대처해야 할 일이 아이에게로 떠넘겨지는 문제적 장면이다. 아이는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완충제로 작용하고 “웃으며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할 책무를 걸머진다. 가정 내부의 암묵적 위계 속에서는 폭력적 순간을 견뎌내야 하는 임무가 형태를 바꿔가며 약자에서 더 약자에게로 이양된다.

상처 주는 사람으로 돌변하는 걸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남아〉, 139. 강조는 인용자)며 “시’자의 명령”을 반성할 때, 저자는 ‘같은 여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녀가 보여주는 울분과 자성을 통해 알 수 있듯, 같은 여성으로서 상대가 겪는 고통의 정체를 알고 있으며 나아가 언제나 같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적 깨달음은, 괴롭힘의 연쇄를 단절해 내지 못하는 듯 보인다. 우리가 ‘같은 여자’라는 생각은 각자의 차이를 여성이라는 젠더로 치환하는 성차별적 사고방식의 산물일 것이다. 군대 내부조리 문제를 두고 ‘같은 남자끼리 왜 그러냐’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인식은 물론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위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같을’ 수 없다. 여성들은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부장제에 의해 수탈당하는 존재이면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위계를 접하기도 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누이와 올케가 그렇듯 말이다. 한국 사회의 가족 안에서 여성들은 각자가 속한 다른 위계 안에서 저마다 다른 형태의 차별을 마주한다. 〈남아〉의 저자가 정직하게 드러내 보인 것처럼 한 여성이 며느리로서, 그리고 시누이로서 각기 다른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 여성이기에 겪는 부당함에 함께 분노하면서 동시에 우리 각자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존재임을 사유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시가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에 내속해 있는 것이다.

4.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 현대문학 연구장에서 ‘며느리’들의 목소리는 오랜 기간 무반향(無

反響)의 구역에 방기되어 있었다. 2015년의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여성 서사가 폭발하고 여성의 역할과 그 관계성에 대한 연구가 활황을 이루었으나, 그 활기 속에서도 가정 내 하위주체인 며느리들의 목소리를 학술적 탐구 대상으로 삼는 시도를 찾기는 어려웠다. 이는 일정 부분 '고부갈등'이라는 오칭에서 기인하는 문제다. 며느리가 시가에서 겪는 문제들은 '고부'만의 문제도 아니며 대등한 개인 사이의 '갈등'도 아니다. 본 논문은 2015년의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발표된 두 편의 며느리 자기서사, 김진영의 〈슬기로운 B급 며느리 생활〉과 박식빵의 〈남아, 그 선을 넘지 마요〉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아 그간 사적 갈등으로 치부되어 온 '고부갈등'이 가부장제적 가족 구조에 의한 구조적 폭력임을 확인하였다.

고부 관계에서의 문제는 주로 마저리 울프의 '자궁가족'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남성 중심의 부계 가족과는 구별되는 여성 중심의 가족 해석은 며느리 시기를 겪으며 고생한 여성들이 어째서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한다. 사회적·경제적 생존을 남성(아들)에게 의지하는 가부장제적 가족 구조 안에서, 여성 주체의 남성중심주의는 생존의 한 방편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면서 스스로의 안위와 권력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핵가족화로 더 이상 부모와 기혼 자녀가 동거하지 않고, 맞벌이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시집살이는 '고부갈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며느리 자기서사들은 우리가 '고부갈등'을 새롭게 명명해야 할 필요를 일깨운다.

〈슬기로운 B급 며느리 생활〉은 민주화 이후 성평등을 교육받으며 자란 80년대생 여성 청년에게 '며느리 되기'란 노골적인 가부장제로의 편입으로 경험됨을 보여준다. 여성 주체에게 결혼으로 마주하는 새로운 가정은 학창 시절 학습한 개인주의·능력주의가 신화로 판명되는 곳이다. 남성중

심적 가족 서열화 속에서 며느리는 시가 가족 구성원들 중 가장 낮은 위치를 배정받아 무시와 하대의 대상이 된다. <님아, 그 선을 넘지 마오>는 며느리에 대한 하대가 언어폭력과 괴롭힘으로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며느리의 친절에 대한 은근한 모욕과 이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우위에 대한 암묵적 계산은 친밀성의 공동체로 오해된 가족 내부의 젠더·계급 권력의 역학을 부조한다. 또한 저자의 꾸밈없는 자기반성을 통해 시가 내 부조리가 답습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한국 출판시장에서 자기서사의 부상은 대문자 문학에 맞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청취 가능케 했다는 정치적 의의를 확보하는 한편 나르시시즘적 자기반향에 불과하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듯하다. 아울러 자기서사의 경우 저자의 진솔한 자기고백이 현실의 저자 및 그와 관계 맺은 타자들의 존재를 담보해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윤리성을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민감한 말하기 방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가정 내 하위주체인 며느리들의 자기서사는 가정 안에서 행해지는 젠더 폭력을 고발하기 위해 자신의 내밀한 영역을 공론화하는 위험을 기꺼이 떠맡은 증언의 텍스트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그럴 때 이들의 자기서사는 가부장적 가족 내 모든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일 수 있다.

‘고부갈등’으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문제들은, 며느리를 가장 낮은 지위에 배치해두고 멸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가부장제적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시가 내 괴롭힘’이자 ‘시가 폭력’이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서와 같이 관계상의 우위를 활용한 일방적인 권력 행사다. 따라서 며느리가 겪는 부당 행위는 시어머니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 개인이 마음을 고쳐먹거나 행동을 바꾸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공적 세계에서 경제적·사회적 성취를 이룬 여성들도 명절이면 시

가에서 홀로 설거지를 한다. 또는 설거지하지 않는 스스로를 불편해한다. 남편의 형제자매를 도련님·아가씨로 부르거나, 혹은 최대한 부르지 않기 위해 고투한다.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 최후의 전지(戰地)는 가정이다.

스토킹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그것이 범죄라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 그전까지는 과한 사랑의 표현으로 간주되었다. 열렬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 범죄행위로 규정되는 과정은 '사랑'과 같은 아름다운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주면서, 사회문화적 구조에 의해 성폭력을 사랑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며느리들이 당면한 문제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가족'이라는 무서운 이름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며느리 도리'란 기실 '온 집안의 가장 낮은 지위를 기꺼이 떠맡을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가족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다정한 하대를 '괴롭힘'으로 바로잡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아울러 '시가 내 괴롭힘'이라는 새로운 명명과 함께 열리는 공간은 80년대생 이후의 며느리 세대만을 위한 것일 수는 없다. 강고한 가부장 가족 질서 속에서 자신이 겪었던 시가 내 괴롭힘을 '고부갈등'으로 오해하고, 그 결과 폭력을 일부 재생산하기도 하며, 영웅서사의 내러티브를 차용하는 방식으로밖에 고통받은 과거를 발화할 수 없었던 학대당한 모든 여성들의 경험을 다시 읽기 위한 해석학적 자원으로서 '시가 내 괴롭힘'은 존재한다. 긴 시간을 필요로 할 연구의 첫 머리에서 본고는 우선 2015년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의 며느리 자기서사 분석을 통해 현대 여성의 가정 내 지위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시가 내 괴롭힘'이라는 새로운 명명이 관련 논의를 촉발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진영, 『슬기로운 B급 며느리 생활』, 김영사, 2019.
박식빵, 『남아, 그 선을 넘지 마오』, 북로그컴퍼니, 2020.

2. 논문과 단행본

- 강유진, 「'여인의 일생'과 가족사 소설의 현대적 변용 연구 -『파친코』, 『알로하, 나의 엄마들』, 『밝은 밤』을 중심으로 -」, 『어문논집』 제93권, 중앙어문학회, 2023, 269-302쪽.
- 강현민, 「다문화가정의 사소한 갈등 : <다문화 고부 열전>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8호, 한국콘텐츠학회, 2015, 179-185쪽.
- 강현숙 외 11명,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의 삶」,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제29권 6호, 한국간호과학회, 1999, 1233-1243쪽.
- 공다해, 「웹툰에 나타난 젠더 재현과 여성민속적 함의 - <며느라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69권,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5-39쪽.
- 공라현, 「'가족'이라는 윤리의 폭력성과 전복의 정당성 - 황정은의 「파묘」(2019)와 강화길의 「음복(飮福)」(2019)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87호, 한국비평문학회, 2023, 7-43쪽.
- 구자준, 「변화하는 일상툰의 비판적 가족 재현 - 웹툰 <단지>와 <며느라기>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65호, 한국극예술학회, 2019, 71-98쪽.
- 김나영, 「현대 소설의 가족 형상화 연구 - 2010년대 이후 모녀 서사를 중심으로」, 『픽션과논픽션』 제1권 1호, 픽션과논픽션학회, 2024, 7-33쪽.
- 김민희, 『고부일기』, 형제출판사, 1995.
- 김밀양, 「고부관계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9권 2호, 한국가족관계학회, 2004, 173-187쪽.
- 김용상, 『고부전쟁』, 도서출판멜론, 2013.
- 김서화, 「우리가 가족을 배반할 때」, 『황해문화』, 2018 봄호, 73-92쪽.

- 김은하, 「여성 정병리의 소수적 감정 쓰기」, 『현대문학의 연구』 제78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2, 517-550쪽.
- _____, 「젊고 아픈/미친 여자와 자기 이론으로서의 글쓰기—여성 거식증에 관한 일인칭 서사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6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 106-134쪽.
- 배운민정,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푸른숲, 2019.
- 박남기, 「최근 한국만화의 가족 재현 연구 -정상 가족의 위기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 재현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23, 262쪽.
- 박다솜, 「모성 승배와 모성 혐오의 약순환 - 이수지의 '제이미맘' 캐릭터와 박서련의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31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25, 327-360쪽.
- 박혜숙·최경희·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 『여성문학연구』 제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323-349쪽.
- 서경희·정철원, 「누가 갈등의 유발자인가?: 「다문화 고부열전」의 제목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1권 5호, 인문사회21, 2020, 1249-1264쪽.
- 선호빈, 『B급 며느리—난 정말 이상한 여자와 결혼한 걸까?』, 믹스커피, 2018.
- 성은영·권지은·황순택,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고부갈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7권 3호, 한국여성심리학회, 2012, 363-383쪽.
- 성은영·황순택,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고부갈등, 스트레스 대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8권 1호, 한국여성심리학회, 2013, 243-256쪽.
- 소영현 외 16명, 『비평포럼』, 문학과지성사, 2025.
- 수신지, 『노땅큐, 며느라기 코멘터리』, 굴프레스, 2018.
- _____, 『며느라기』, 굴프레스, 2018.
- 신동훈 외 8인, 『시집살이 이야기 연구』, 박이정, 2012.
- 아넛, 『가부장제의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위즈덤하우스, 2022.
- 영주, 『며느리 사표』, 사이행성, 2018.
- 오혜진, 「세대로 이어지는 환대와 우애의 여성 서사」, 『어문논집』 제92권, 중앙어문학

회, 2022, 269-292쪽.

윤택림, 「여성은 어떻게 이야기 하는가: 시집살이 이야기를 통해서 본 여성 서사 분석」, 『구비문학연구』 제32호, 한국구비문학학회, 2011, 145-180쪽.

윤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가족소설에 나타난 균열의 양상과 의미 -김혜진, 『딸에 대하여』와 황정은, 『연년세세』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6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 36-59쪽.

임돈희, 「여성과 가족관계」, 여성학교재편찬위원회 엮음, 『여성학의 이론과 실제』, 동국대학교출판부, 1991.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20.

조경숙, 「며느리, 비로소 말하다」, 『여/성이론』 제38호, 도서출판여이연, 2018, 225-232쪽.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99.

천정순, 『붕어빵은 왜 사왔니?』, 형제출판사, 1996.

황중연, 「모계 여성 서사와 그 불만—정세라의 『시선으로부터』와 최은영의 『밝은 밤』에 관하여」, 『문학동네』 2023 여름호, 430-447쪽.

우에노 지즈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이승희 역, 도서출판 녹두, 1994.

미란다 프리커, 『인식적 부정의』, 유기훈·정선도 역, 오월의봄, 2025.

벨 호스, 노지양 역, 『난 여자가 아닙니까?—성×인종×계급의 미국사』, 동녘, 2023.

3. 기타자료

선호빈, 〈B급 며느리〉, 2018.

김유민, 〈코로나 이후 “친인척과 멀어져”...명절 이혼 줄었다〉, 『서울신문』, 2022.01.1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10500130>. (접속일: 2026.01.09.)

〈어머니-아들-며느리가 쓴 고부갈등 극복담〉, 『조선일보』, 1997.05.2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7/05/29/1997052970166.html. (접속일: 2026.01.28.)

Abstract

The delusion of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 A study on daughter-in-law's self narrative after 2015

Park, Dasom(Hanyang University)⁵⁷⁾

The various issues condensed into the term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a daughter-in-law’ in our society, despite being a concrete reality faced by contemporary female subjects, have not been actively explored in Korean modern literary studies. Although the popularization of feminism after 2015 led to a flourishing of research into various female character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in the Korean literary field, the status of the daughter-in-law or mother-in-law and their relationship have not been adequately addressed.

Based on this critical awareness, this paper analyzes two self-narratives by daughters-in-law published since 2015: *The Wise Life of a B-Class Daughter-in-Law* and *You, Don't Cross That Line*. Through this analysis, we aim to illuminate what ‘becoming a daughter-in-law’ means to young women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nd propose ‘In-Laws’ Harassment’ as a replacement for the misnomer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a daughter-in-law’. This re-naming allows us to realize that what we have mistakenly considered a private conflict between two women is, in fact, sexual discriminatory violence rooted in the structural hierarchy of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By re-recognizing the suffering and its perpetuation experienced by femal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5S1A5B5A1701 2572)

subjects as daughters-in-law as a form of gender-based violence within the family,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family narrative studies.

(Keywords: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relationship,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in-law's violence, in-law's harassment, uterine family, daughter-in-law, mother-in-law, in-laws, in-laws, essay, self narrative.)

■ 논문투고일 : 2026년 1월 10일

심사완료일 : 2026년 1월 27일

수정완료일 : 2026년 2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26년 2월 14일